Check for updates

JFMSE, 38(5), pp. 1112~1121, 2026.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8권 제5호, 통권143호, 2026.
www.ksfme.or.kr
https://doi.org/10.13000/JFMSE.2026.10.38.5.1112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조절효과

이 광 빈†
†대구한의대학교(강사)

The Effect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Recognized by College of Liberal Studi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University Location

Gwang-Bin LEE†
†Daegu Hanny University(lecturer)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388 freshmen who entered college of liberal studies. The study measured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identity. Based on these variables, two research models were established. Firs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llege lo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ollege life adaptation. Seco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llege lo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identity.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ident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spective models. However,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university loc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ither model. Based on these findings, educ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Educational service qua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llege life adaptation, Career identity.

I. 서 론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역사회 맞춤형 대학 입학자원 예측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2035년 입학자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1만 2324명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on, 2024).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단순히 지역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붕괴를 넘어 지역 소멸을 유발할 수 있다(Han, 2023).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컬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등 다양한 지원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교육

† Corresponding author : ※ 개인정보 표시제한 k.voc.edu@gmail.com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5S1A5B5A17016235)

부는 대학 입학 정원의 30%를 전공 구분 없이 뽑는 자율전공 실시 여부에 따라 혁신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통해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자율전공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다(Jang, 2023).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자율전공선택제 중점 추진 대학으로 수도권과 국립대는 총 73개교로, 이는 총 모집인원의 28.6%인 3만 7935명을 모집하여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24a).

자율전공선택제란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로,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하여 학생의 전공 100% 자율 선택 보장하는 유형 1과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 후 100% 전공 자율 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 보장하는 유형 2로 구분된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24b). 이러한 대학 구조의 변화에 있어 각 대학들은 자율전공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각 대학별로 한정되어 있어 자율전공선택제를 선택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자율정공선택제라는 새로운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대학의 교육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는 2010년대가 되며,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ee, 2023).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최근 자율전공선택제로 변화된 대학 정책에서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율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인식되는 교육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 자신의 전공 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다양한 각도로 연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 자율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의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이라는 정서 및 대인관계와 같은 환경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생 개인의 대학 생활 동안 진로개발에 대한 내재적 자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간의 매개효과는 자율전공선택제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학생과 대학의 혼선을 예방하고 초기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적 과제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조절 효과를 통해 현재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 대학이 자율전공선택제를 통해 변인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모색해 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둘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 소재지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셋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넷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 소재지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서비스품질

교육서비스품질은 일반적인 서비스인 통신서비

스, 금융서비스, 여행서비스 등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교육은 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교육서비스품질이란 교육서비스 공급자인 교수와 교직원이 수요자인 학생에게 바라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하며(Lee, 2006), 이러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물리적·정신적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Lee and Hong, 2010).

특히 국내 대학의 경우 공급자인 학교가 수요자인 학생의 수를 능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서비스품질을 주목하고 있다(Bae,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서비스품질과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자율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생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전공선택제를 도입한만큼, 자율전공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이들의 진로에 기저하는 중요 변인이 될 것이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 등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Phillips and Pazienza(1988)는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행하는 준비행동과 실천행동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진로준비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Kim(1997)은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과 진로결정 후 이를 실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와 스스로 결정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진로준비행동임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상태에서 자율전공선택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으로 1년간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에 중요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자율전공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탐색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Kim and Kwon, 2025; Kang, 2026), 중요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3.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의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대학생활적응이란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응하여 육체적·정신적 측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Park and Chong, 2007). 따라서 이는 학업적 특성, 대인관계과 함께 직업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abd Jo, 2011).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Lee, 2024; Park and Eum, 2020; Park and Park, 2019).

또한 진로정체감은 직업영역에 대한 자아정체감으로서,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흥미, 목표,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의미한다(Holland and Holland, 1977). 미래 직업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인 전공선택에 있어 자율전공기간은 직업에 대한 흥미와 목표에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핵심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Yang and Kim(2008)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이 발달해야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결과들을 제시하며, 진로준비행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Yang and Kim, 2008; Lee and Choi, 2020).

이처럼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은 자율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중요 예측요인이지만 중요도에 비해 선행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자율전공선택제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학의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안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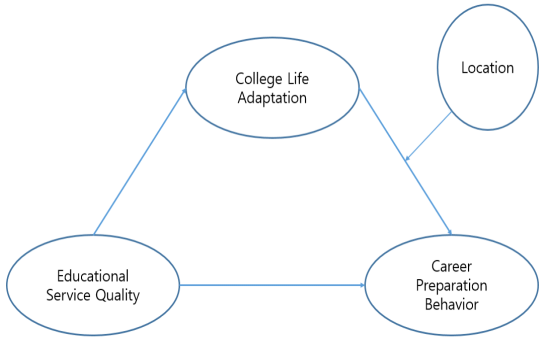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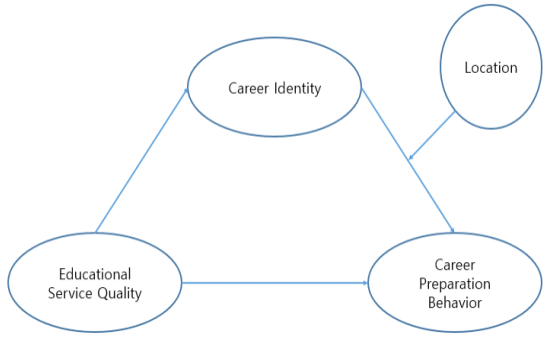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과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자율전공선택제를 시행 중인 4개 대학교의 각 100명씩 총 400명의 학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있어 대학의 소재지(수도권과 비수도권)와 형태(국립과 사립)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Krejcie and Morgan(1970)이 제시한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을 넘을 경우 95%의 신뢰 수준과 5%의 오차 범위에 권장하는 표본의 크기인 385이상을 준용하기 위해서다. 설문은 2025년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진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과 오류가 있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388부의 응답을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로 입력하였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모형 1과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모형 2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각 모형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아래 [Fig. 1] 및 [Fig. 2]와 같으며, 이는 Hayes(2018)이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2의 Model 14를 준용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1.



[Fig. 2] Research Model 2.

3. 조사 도구

설문지의 각 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속된 대학교의 소재지, 형태, 성별 3문항의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교육서비스품질에 대한 문항 구성은 Kim(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변인은 유형성 4문항, 교육과정 4문항, 신뢰성 4문항, 상호작용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문항 구성은 Jung and Park(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변인은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항구성은 Kim(2013)가 연구에

서 사용한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변인은 진로정체감 정서 8문항, 진로정체감 인지 8문항, 진로정체감 행동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문항 구성은 Kim(1997)이 개발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변인은 정보수집 활동 3문항, 실천적노력 3문항, 도구구비활동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구성과 예비설문에서의 내적일관성를 나타내는 Cronbach's a값은 교육서비스품질의 경우 하위요인별로 .814~.916,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하위요인별로 .835~.911, 진로정체감의 경우 하위요인별로 .813~.922,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하위요인별로 .852~.912로 나타났다.

Ⅳ. 연구 결과

1.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1단계에서 교육서비스품질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19.042, p<.001). 2단계에서 교육서비스품질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229, p<.001),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9.955, p<.001). 또한 간접효과에서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337~.546)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대학소재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교육서비스품질이 대학생활적응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대학소재지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지수는 -.112이고,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어 있어(-.241~.020) 조건부 간접효과(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Mediating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B	SE	t	p	LLCI	ULCI
Step 1: Educational Service Quality → College Life Adaptatio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869	.046	19.042	.000	.779	.959
R^2 =.484, F=362.593, p<.001						
Step 2: Educational Service Quality, College Life Adaptat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ducational Service Quality	.328	.063	5.229	.000	.205	.452
College Life Adaptation	.501	.050	9.955	.000	.402	.600
R^2 =.500, F=192.859, p<.001						
Step 3: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764	.051	15.117	.000	.664	.863
Direct effect	.328	.063	5.229	.000	.205	.452
Indirect eff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435	.054	.337	.546

Bootstrapping 5,000 resamples

<Table 2>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university location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Adap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coeff	SE	t	p	LLCI	ULCI
Educational Service Quality → College Life Adaptation						
Constant	.316	.184	1.719	.086	-.045	.676
Educational Service Quality	.869	.046	19.042	.000	.779	.959
R^2 =.484, F=362.593, p<.001						
Educational Service Quality, College Life Adaptation, Loc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X Locat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412	.430	-.958	.339	-1.257	.436
Educational Service Quality	.265	.062	4.273	.000	.143	.387
College Life Adaptation	.717	.122	5.885	.000	.477	.957
Location	.764	.274	2.793	.006	.226	1.301
College Life Adaptation X Location	-.129	.071	-1.825	.069	-.268	.010
R^2 =.536, F=110.477, p<.001						
Dependent variable model						
Constan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College Life Adaptation X Location		-.112	.067	-.241	.020	
Path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metropolitan area		.511	.062	.392	.637	
non-metropolitan area		.399	.059	.291	.524	

Bootstrapping 5,000 resamples

3.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1단계에서 교육서비스품질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15.102, p<.001). 2단계에서 교육서비스품질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624, p<.001),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16.317, p<.001). 또한 간접효과에서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403~.582)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대학소재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교육서비스품질이 대학생활적응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대학소재지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지수는 -.073이고, 부트스트랩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어 있어(-.170~.022) 조건부 간접효과(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전공선택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B	SE	t	p	LLCI	ULCI
Step 1: Educational Service Quality → Career Identity						
Educational Service Quality	.700	.046	15.102	.000	.609	.791
R^2 =.371, F=228.059, p<.001						
Step 2: Educational Service Quality, Career Ident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ducational Service Quality	.276	.049	5.624	.000	.179	.372
Career Identity	.697	.043	16.317	.000	.613	.781
R^2 =.629, F=325.901, p<.001						
Step 3: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764	.051	15.117	.000	.664	.863
Direct effect	.276	.049	5.624	.000	.179	.372
Indirect eff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488	.046	.403	.582

Bootstrapping 5,000 resamples

<Table 4>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university location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coeff	SE	t	p	LLCI	ULCI
Educational Service Quality → Career Identity						
Constant	.953	.187	5.4105	.000	.586	1.320
Educational Service Quality	.700	.046	15.102	.000	.609	.791
R^2 =.371, F=228.059, p<.001						
Educational Service Quality, Career Identity , Location, Career Identity X Locatio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706	.413	-1.711	.088	-1.518	.106
Educational Service Quality	.247	.048	5.110	.000	.152	.343
Career Identity	.852	.116	7.363	.000	.625	1.080
Location	.589	.257	2.291	.023	.084	1.095
Career Identity X Location	-.104	.068	-1.535	.126	-.237	.029
R^2 =.648, F=175.932, p<.001						
Dependent variable model						
Constan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College Life Adaptation X Location			-.073	.048	-.170	.022
Path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metropolitan area			.524	.058	.411	.642
non-metropolitan area			.451	.048	.361	.550

Bootstrapping 5,000 resamples

첫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Lee, 2023; Kim and Oh, 2024) 및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Park and Park, 2019; Lee, 2024)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은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율전공선택제로 입학한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대학은 학생들의 심리적·체험적 활동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Tang and Kim, 2008; Lee and Cjoi,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은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율전공선택제로 입학한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적 자아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목표와 흥미를 통한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이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소재지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로와 관련한 변인 중 일부 하위요인에서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인다. Yu and Yoon(202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유능감과 좌절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Lee(202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의 하위요인 중 구체성과 혁신성에서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대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나타난 한정적인 결과라고 예측된다.

이를 토대로 내린 본 연구의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자율전공선택제 학생의 진로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교육서비스품질은 기존의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자율전공선택제를 통한 입학자원 변화에 맞게 교육과정 및 학교와의 상호작용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Myeong(2024)는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위한 형식적 자율전공선택제는 학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서비스품질을 통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양과목을 제공과 교수진의 개별적인 멘토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은 자율전공선택제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전공선택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신입생의 단계에서 특정 전공으로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학과 동기 관계 및 선후배 관계 등에 있어서 소속감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전공선택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와 개인심리를 향상시키고, 체험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개발과 대학 활동 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은 자율전공선택제 학생들에게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율전공선택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그 중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자연스레 발견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학이 취업사관학교화 되는 현실에서 자율전공선택제도 결국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보다 취업시장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는 구조적 한계 봉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안정된 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상담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부처 차원의 통일성 있는 자율전공선택제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도입과 함께 대학에 대한 지원과 평가 등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자율전공선택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역시 시행 1년 만에 나타난 한계점으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대학생활과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자율성과 함께 정부 부처 차원에서의 제도적 도움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해당 변인 간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기초연구 차원에서의 변인간의 구조적 경로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논의에서 제시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에 개발에 있어 구체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설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연구한다면 향후 자율전공선택제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점이 대학 1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대학소재지에 대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의미가 있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어떤 시점에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이나 좌절이 심화되는지를 추적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해당시기 지방대학 학생들의 심리적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Bae SY(2020). The Development of a Measuring Instrument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for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s. a doctoral dissertation at Dankook University..

Jan SM(2023).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Local Universiti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ang JH and Lee JH(2023). "Provide university innovation subsidies depending on 30% of autonomous majors." Edupress.

Jung EI and Park YH(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http://dx-doi-org/10.17927/tkjems.2009.21.2.69

Kang SG(2026).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mong Undecided Major Freshmen. a master's thesis at Chung-Ang University.

Kim BA(2022). The Effect of Quality of Educational Service in Cooking High School on Educational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a doctoral dissertation at Honam University.

Kim BH(1997). Development and two-dimensional typology of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S and Kwoon JH(2025).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Autonom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ndeclared Freshmen. Crisisonomy, 21(11), 203~211.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5.21.11.203

Kim KW and Jo YH(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209~210.

Kim SJ(2013). Development of the Career Identit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 doctoral dissertation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im SM and Oh DH(2024). A Study on Impact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in Restaurant Culinary Major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27(6), 281~299.

Lee BS and Han HJ(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Educational Service Quality in International Trade Major. Korea trade review, 35(1), 77~101.

Lee GB(202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nd Major Flow,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in Specialized High Schools. a doctoral dissertation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Lee GW and Choi B(2020).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Majors Undergraduates: Hope and Career Identity as Mediating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1), 109~129.

Lee HM(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a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C(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evaluative criteria in college education service on service quality, student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 doctoral dissertation at Sangmyung University.

Lee TH(2024). The Impact of Theology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Sense of Call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ace and Religions, 2024(18), 169~199. https://doi.org/10.25168/kaprs.2024.18.169

Myung SH(2024). University's Department of Autonomous Majors, where is it going? the Kiho Daily.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6).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Park BH and Chong YS(2007)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 Attachment and Adjustment in College.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3), 45~57.

Park JH and Park SH(2019).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105~130.

Park SY and Eum DY(2020). Impact of College Life Adaptation o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Physical Education Major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8(3), 317~326. https://doi.org/10.46669/kss.2020.18.3.029

Phillips AD and Pazienza NJ(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1~3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on YH(2024). A study on prediction university admission resources tailored to regional communiti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Ministry of Education(2024a). Information on the main points of the college admission implementation pla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5.

The Ministry of Education(2024b). Expand students' major choices through the major self-determination system.

Yang JH and Kim BH(2008).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2), 57~71.

Yu KC and Yoon MS(2025).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JW and Job-Seeking Anxiety Among University Students: A Multigroup Analysis by University Lo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9(4), 417~443. http://dx-doi-org/10.17286/KJEP.2025.39.4.03

Hayes(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Guilford Press, New York.

Holland JL and Holland J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Psychology. 24, 404~414.

Krejcie RV and Morgan DW(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607~610.

• Received : 10 July, 2026
• Revised : 27 August, 2026
• Accepted : 02 September, 2026